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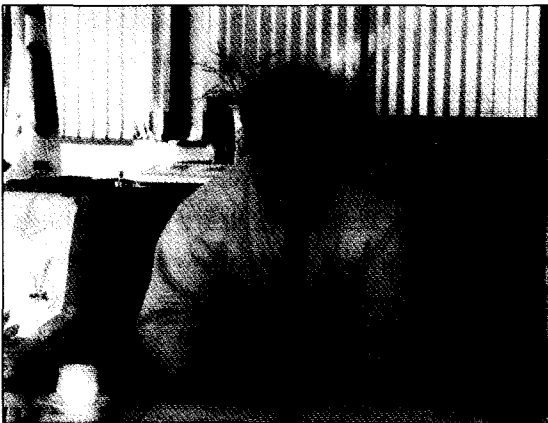
# INTERVIEW

## (주)평화발레오



김 태 권 교수  
계명대학교

2000년 1월 21일 대구 성서공단에 위치한  
(주)평화발레오를 방문하여  
김상태 사장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 항상 프로정신을 가지고 기술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는 김상태 사장.

(주)평화발레오와 평화크래치공업(주)의 연혁에 대해 우선 소개해 주시지요?

평화발레오의 시작은 1970년대 설립된 평화클러치공업주식회사입니다. 당시에는 자동차산업이 낙후된 상태였고, 클러치, 도어문짝 부품등 생산한 제품들의 수도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그리하다가 생산부품을 전문화시키자는 생각으로 1985년 도어 시스템부문을 분리시켜 평화정공을 설립했습니다. 뒤이어 클러치 부문을 분리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클러치 시스템의 R&D 개념이 바뀐다는 전망이 많았고, 실제로 해외를 많이 다녀본 결과, 그 전망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합작할 회사를 찾았고, 클러치에 관계된 아이템들을 가지고 1988년 프랑스의 Valeo와 합작하여 (주)평화발레오를 설립했습니다. 클러치 부문에 전문성을 더 강화하게 된 것이지요. 본격적인 생산활동과 아울러 품질 개선등으로 1989년 현대자동차(주)의 품질관리 1등급업체에 선정되고 대우, 기아자동차로부터도 품질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1998년에는 품질경쟁력 50대 기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모체인 평화크래치공업(주)는 1970년에 설립돼 꾸준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1983년, 1984년에 미국 크라이슬러포드, GM으로부터 공장등급심사에 합격했습니다. 1991년에는 (주)하나엔지니어링을 설립하여 금형 및 기계류를 제작하게 되었고, 1993년에는 (주)한국파워트레인을 설립하여 토로크 컨버터를 제조하고 미국보그워너사와 기술 합작을 하였습니다. 저희 평화발레오사의 종업원수는 650여명에 이르고 주요 제조품목으로는 클러치 커버, 클러치 디스크, 클러치 릴리즈 베어링, 클러치 실린더,

클러치 웨이싱 등으로 내수보다는 수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술개발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발레오와 합작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당시 가지고 있던 기술로는 외국의 대기업과 경쟁이 안되었으므로 Valeo와 합작하여 기술개발에 힘써왔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발레오는 R&D에 투자하는 비용이 매출의 7~10% 정도입니다. 또한 클러치업계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프랑스의 발레오사와 독일의 LUK사가 유명하며 제품에 대한 수요도 두 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클러치 부분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R&D 기술을 도입하여 신제품을 개발하자는 의도였고, 합작을 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기능도 좋고 값도 싼 신제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R&D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응용 위주였으나, 이제부터는 독자개발 위주의 R&D 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반면, 평화정공에서는 생산하는 아이템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비교적 적어도 가능한 것들이어서, 본격적으로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고 회사의 부품들을 연구하고 여기에 우리의 기술을 부합시켜 더 나은 기능과 값싼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한국파워트레인은도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이제는 독자 개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독자 기술보유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화발레오가 프랑스의 발레오와 합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합작은 상호이익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발레오로부터 기술과 관리 차원에서도 도움을 받고 발레오사는 우리의 강점인 생산기술 쪽에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레오와 R&D 투자를 함께 하기로 했고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하면 그 기술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레오도 우리 기술을 인정한다는 증거입니다. 평화발레오의 목표는 클러치 수요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독자 기술을 가지고 이를 인정 받아 치열한 경쟁에서도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도 경쟁이 치열하지만 향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 봅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을 개발하고, 제품의 불량률을 현저히 낮추어야 하며 특히 정보 공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넷 등 전산능력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부품업계같은 제조업체에서도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힘든 부분이지만, 산학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 역시 기술의 방향 등 모든 면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항상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업체의 오너는 항상 professional mind를 가지고 늘상 긴장하고 발전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대구지역의 성서공단에 위치함으로 해서 기업 활동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지리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불리한 여건을 장애로 바라보지 말고 이를 극복해서 발전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인터넷의 대중화, 기술발전 등으로 하고자 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구는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여건이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알면 오히려 마음가짐

# INTERVIEW

이 더 강해지리라 봅니다. 우리 회사의 몇몇 직원들은 일류학교를 나오진 않았지만 프랑스의 발레오에서 인정을 해주는 등력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들은 경험을 기초로 하여 자기관리와 자기개발에 충실했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어 생기는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세계를 무대로, 세계 최고를 경쟁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더 큰 힘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회사의 오너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느끼고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든 그 일에 있어서는 프로정신을 가지고 최고가 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그것을 가르쳤으면 좋겠구요. 잘하고 못하고는 정신과 자세의 문제이므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자기 할 일이 뭔지를 알고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졸업후에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프로 정신을 가지고 회사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일에 걱정하고, 자신이 발견한 허점에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얻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프로는 항상 자기 일에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걱정이 바로 자기 발전과 프로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말과 글로 하는 것보다 실제 보고 느끼고 하는 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눈을 좁게 국내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해외로 돌려 더 넓은 세계를 봤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적으로 건강한 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한탕주의를 쫓아 주식이나 도박으로 돈을 벌자는 생각은 위험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발전하고 회사가 발전하고 나아가 사회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 생산공장 내부 전경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는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내수 보다는 수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출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외국에서 품질을 인증받기 위해 출하품질의 불량률을 제로화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품질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내의 한정된 시장보다는 외국을 주무대로 겨냥하여 우리만의 기술과 품질로 세계로 나아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권편집위원 : tkkim@kmu.ac.kr〉